

〈일반논문〉

『原本老乞大』를 통해 본 고려와 원나라의 직물 교역*

이 은 주 **

〈목차〉

- I. 머리말
- II. 『원본노걸대』 간행과 내용
- III. 고려와 원나라의 교역 직물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4세기 중기에 쓰인 『原本老乞大』를 중심으로 당시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교역품으로 사용되었던 직물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적인 교역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중국어 회화책이지만 고려 말의 정황을 반영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고려와 원나라의 교역품으로 기록된 직물을 문헌과 유물을 참고하여 밝혔다.

둘째, 40세의 고려 상인이 세 명의 동료와 함께 원나라에 가서 판매하기 위해 가져간 직물은 모시와 철릭포였다. 특히 원나라에서는 고려 모시가 여름철 소재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인가가 있었는데 11승 모시 100필과 9승 모시 30필을 가지고 갔으며 11승 모시 1필은 150냥에 팔았고, 9승 모시 1필은 100냥에 팔았다.

셋째, 철릭포는 모시에 비해 색이 어두워서 흔히 흑마포로 불리던 삼베였다. 『눌재집』을 통해 실제 색상은 진흙으로 염색한 연한 붉은색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고려 상인은 고급 삼베는 70냥을 받고 팔았으며 중급 삼베는 50냥에 팔았다. 삼베 가격은 모시의 절반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고려 상인은 대도에서 고려에 귀국하여 팔기 위한 직물을 구입하였다. 능(綾), 견(絹), 아청금흉배단자(鵝靑金胸背段子), 화직(和織), 화소(和素), 자저사단자(紫紵絲段子), 추목면(麤木綿), 혼금화소단자(渾金和素段子), 그리고 초금단자(草金段子)였는데 그중 능, 견, 초금단자는 강남에서 생산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화(和)’자가 포함된 혼금화소단자와 화직, 화소 등은 몽골의 첫 수도였던 화림(和林, Qaraqorum) 장인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고려에서 가지고 간 교역 직물은 모시와 삼베 두 종류였으나 대도에서 구입한 원나라 직물은 추목면(麤木綿) 외에 대부분 비단류였다. 특히 원나라를 중심으로 14세기에 유행하였던 고급 혼금단자와 그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초금단자 등 직금 직물을 적지 않게 수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한어 학습어, 원본노걸대, 고려, 원나라, 직물 교역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여말선초 한어 학습서로 사용되었던 14세기 중기 간행본 『原本老乞大』¹⁾의 기록을 통해 고려 상인의 행적을 살펴보고 14세기

중기에 원과의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물의 교역 양상을 밝혀보고자 함에 있다.

조선시대의 『老乞大』는 『朴通事』와 더불어 조선조 사역원 역관들의 한어 학습서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 『노걸대』는 원대의 북경 통용어인 한아언어(漢兒言語)를 반영한 것이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14세기 중국어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²⁾ 한어 학습서로서의 용도에 맞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선 전기(全期)를 통해 꾸준히 원문의 개수(改修)와 언해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 책이 지닌 한어 학습서로서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조선 성종 대(1480~1483)에는 명나라 갈귀(葛貴)와 방귀화(方貴和)가 명대 남경의 관화(官話)로 바꾸어 『(刪改)老乞大』를 간행하였으며 정조 때까지 꾸준히 개정되었다. 개정 당시의 실정에 맞게 내용도 조금씩 가감되었다.³⁾ 이런 점에서 『노걸대』의 여러 판본은 간행 시기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자료의 내용 비교를 통해 교역물의 변화는 물론, 생활문화의 변화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노걸대』는 1998년 남권희에 의해 대구에서 발견된 후, 남권희와 정광에 의해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정광의 깊이 있는 연구는 『노걸대』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후 『노걸대』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서지학적 연구, 문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이본에 대한 비교 연구, 한어문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⁴⁾ 또한 교역·무역사 분야에서도 『노걸대』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⁵⁾ 복식사 쪽에서 『노걸

1) 원본에는 『老乞大』로 기록되어 있으나 처음 간행된 원본으로 파악됨에 따라 조선시대에 간행된 『노걸대류』와 구분하기 위하여 『일본노걸대』로 명명되었다.

2) 정광, 「노걸대와 〈박통사〉」, 『인문언어』 15(3), 2013, 12쪽.

3) 위의 논문, 12쪽.

4) 石朱娟,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쪽.

대』를 다룬 초기 연구로, 김진구(1996)의 직물과 의복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⁶⁾가 있으며 이후 서정원(2003)의 『노걸대』 간본들을 통해 14~18세기 복식 용어를 살펴본 연구⁷⁾가 있었다.

『노걸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교역물품에 대한 텍스트 설명은 이루어졌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물을 다룬 실증적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교역물품의 가시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과 유물을 참고하여 『노걸대』에 기록된 직물 교역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교역물과 관련된 직물과 관련 유물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추후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교역품과 당시 유행한 복식류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고려 말기 원과의 복식품 교역 양상과 복식문화 교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원본노걸대』 간행과 내용 속 고려 상인

1. 『원본노걸대』의 발굴과 간행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역원 등의 기관에서 한어를 교육시키기 위해 꾸준히 사용한 작자 미상의 대표적인 두 교재를 들 수 있다. 하나

5) 위은숙, 「원간섭기의 對元貿易: 『老乞大』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이강환,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20.

6) 金鎮九, 「老乞大의 服飾研究」, 『복식문화연구』 4(1), 1996, 1~14쪽.

7) 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는 본 연구 대상인 『노걸대』이고, 다른 하나는 『박통사』인데, 초본은 1350년 경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걸대』는 고려 상인이 원의 수도인 대도에서 말과 인삼, 모시와 철릭포를 판매한 후, 원나라 물품을 사서 귀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박통사』는 대도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⁸⁾ 『박통사』가 상대적으로 고급 수준의 회화 학습서라고 하면 『노걸대』는 좀 더 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초급 수준의 회화 학습서이다.

‘노걸대’라는 말은 중국 사정에 의한 ‘중국통(中國通)’이라는 뜻으로,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고려 상인을 말한다. 『노걸대』의 내용은 주인공 고려 상인과 동행인 3인이 원나라 수도인 대도(大都, 지금의 북경)까지 말에 인삼과 모시, 철릭포 등을 싣고 가서 이를 판매한 후 이윤을 남길 책이나 비단, 장신구 등 중국 상품을 교역해 오는 과정을 회화체로 담고 있다.

정광의 설명⁹⁾에 따르면 『노걸대』의 발굴, 이후의 일련의 연구 및 간행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노걸대』는 1998년 대구 고서수집가의 집에서 남권희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해 정광·남권희는 국어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2000년에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元代漢語本《老乞大》』라는 서명으로 영인본을 간행하였는데 이를 보면 장면의 구분 없이 이어져 작성되어 보기 어렵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 글자의 확인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2002년에는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2004년 김영사에서 『原本 老乞大』를 정광의 역주·해제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2010년에 박문사에서 다시 『譯註 原本老乞大』로 간행하였다. 본래 원본 『노걸대』의 원문에는 장면에 대한

8) 櫻井智美 外, 『元朝の歴史』, 東京: 勉誠出版, 2021, 200쪽.

9) 정광, 『譯註 原本老乞大』, 박문사, 2010, 3~13쪽.

나뉘지 않고 이어진 상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광은 내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면을 구분하여 번역하고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광의 『譯註 原本老乞大』를 기본 자료로 삼으면서 경북대학교 출판부의 영인본인 『元代漢語本《老乞大》』¹⁰⁾와 대조하여 출처를 각주로 밝힘으로써 자료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정광은 『노걸대』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별로 총 6章 106話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직물 교역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화 정도에 주목하였다.

2. 『원본노걸대』 속 고려 상인과 그의 노정

『노걸대』의 주인공 고려 상인은 고종사촌 형인 김씨와 이종사촌 동생 이씨,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조씨와 함께 4인 1조가 되어¹¹⁾ 정월¹²⁾ 초하루에 고려 왕경(王京, 개경)을 출발하였다.¹³⁾ 왕경을 떠난 지 보름 정도 지나서¹⁴⁾ 요양(遼陽)¹⁵⁾에서 출발한 중국 상인 왕씨¹⁶⁾를 만나 대도(大都, 북경)까지 동행하게 된다. 고려 상인의 이름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본문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겨우 주인공에 대한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105화】에서 오호(五虎)라는 점쟁이에게 귀국 일자를 점치기 위해 본인을 밝히는데 “소띠이고 나이 40세이며 7월 17일 인시(寅時)에 태어났다.”¹⁷⁾고 하였다. 즉 1301년(충렬왕 27) 신축년에 태어난 40세의

10) 『元代漢語本《老乞大》』,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0.

11) 위의 책, 59쪽【제12화】; 『元代漢語本《老乞大》』, 9쪽.

12) 위의 책, 57쪽【제1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8~9쪽.

13) 위의 책, 24쪽【제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1쪽.

14) 위의 책, 21쪽【제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9쪽.

15) 위의 책, 37~38쪽【제6화】; 『元代漢語本《老乞大》』, 4~5쪽.

16) 위의 책, 37쪽【제6화】; 『元代漢語本《老乞大》』, 4~5쪽.

17) 위의 책, 369쪽【제105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7~78쪽.

키 큰¹⁸⁾ 소띠 남자가 『노걸대』의 주인공 고려 상인이다. 중국인 왕씨가 칭찬할 정도¹⁹⁾의 한어 실력을 갖추었는데 물어보니 고려에서 35세의 한인(漢人)이 운영하는 학당에서 『논어』·『맹자』·『소학』으로 한어를 학습하였다²⁰⁾고 했다.

고려 상인은 말 몇 필과 그 말에 인삼, 모시(毛施), 철릭포(帖裏布)를 싣고 출발하였다.²¹⁾ 지난해에는 정월에 왕경을 출발해서 가지고 간 물건을 판 후, 5월에 고당(高唐, 산둥)에 가서 면(綿)·견(絹)을 구입하고 직고(直沽, 지금의 天津)²²⁾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왕경인 개경에 10월에 도착하였다. 2개월에 걸쳐 중국에서 사 온 물건을 팔고 다시 1월에 출발한 것이라고 하였다.²³⁾ 고려에서 출발하여 귀국하기까지 10개월이 걸렸고 2개월간 고려에서 수입해 온 상품을 파는 것이 그의 1년 단위의 일정임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 출발할 때는 팔 말을 가지고 가므로 거기에 물건을 싣고 육로로 간다. 고려에서 가지고 간 말과 물건을 모두 판 후에는 해로의 배편으로 중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싣고 벽란도로 귀국하는 것이다.²⁴⁾ 14세기 중기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고려 상인의 일반적인 이동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8) 위의 책, 255쪽[제74화]; 『元代漢語本《老乞大》』, 53~54쪽.

19) 위의 책, 25쪽[제2화]; 『元代漢語本《老乞大》』, 1~2쪽.

20) 위의 책, 24쪽[제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9쪽.

21) 위의 책, 38쪽[제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1쪽.

22) 정광·양요진 역주, 『노박집랍역주』, 태학사, 2010, 117쪽. “直沽는 무창현(武昌縣) 동남쪽에 있다. …… 『質問』에 의하면 “바다의 입구[海口]”라고 한다”.

23) 정광, 앞의 책, 57쪽[제11화]; 『元代漢語本《老乞大》』, 8~9쪽.

24)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정원의 논문(2003) 9쪽을 참고할 수 있다.

Ⅲ. 고려와 원나라의 교역 식물

1. 고려 상인이 판매한 고려 식물

고려 상인이 중국에 가지고 간 물품은 말 몇 마리와 모시, 철릭포[帖裏布], 인삼이었다. 이 절에서는 고려 모시와 철릭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모시

고려의 모시는 중국에 알려진 유명한 우리나라의 식물이다. 저마포를 지칭하는 중국어 “木絲 musì”, “沒絲 mosì”에서 우리의 ‘毛施’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²⁵⁾ 고 하는 연구도 있다. 송대 손목(孫穆)의 『鷄林類事』에는 판본에 따라 ‘苧曰毛, 苧布曰毛施背’ 혹은 ‘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로 기록되어 있다.²⁶⁾ ‘毛施’는 우리 명칭을 한자를 차용(借用)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 1123년(인종 1) 고려에 송나라 사신으로 다녀간 서경(徐兢)의 『高麗圖經』에도 “고려에서는 모시와 삼을 섞어 옷을 해 입는다. 제일 좋은 것을 ‘시(緇)’라고 하는데 옥과 같이 깨끗하나 폭[邊幅]이 좁다”²⁷⁾ 고 하였다. ‘시’는 모시 또는 모시 중에 좋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기록을 볼 때 ‘모시’라는 명칭은 우리의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원나라의 독특한 연회인 질손연(質孫宴)은 대칸이 신하들에게 대칸과 비슷한 색깔과 문양의 값비싼 의상을 하사하고 그 의상을 입고 참여하는 연회였다. 정해진 형태는 없었는데 몽골 부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²⁸⁾

25) 최규순·包銘新, 「元代 質孫服 중 “毛子”에 관한 고찰」, 『服飾』 56(2), 2006, 131쪽.

26) 姜信沆,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1, 11쪽, 22쪽.

27) 徐兢, 『高麗圖經』 卷23, 雜俗2 土產.

천자질손으로 동복(冬服) 11종과 하복(夏服) 15등급이 있었는데 황제의 하복 소재 중에 ‘홍모자(紅毛子)’, ‘백모자(白毛子)’, ‘타갈모자(駝褐毛子)’ 등이 보인다.²⁹⁾ 이때의 ‘모자’에 대해서는 두 의견이 있다. 하나는 ‘모직물’로 보는 견해³⁰⁾ 이고 다른 하나는 ‘모시’로 보는 견해³¹⁾이다. 본 연구자는 『出使蒙古記』의 내용을 제시한 최규순·包銘新의 견해를 수용하여 모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백모자’는 고려의 유명한 ‘백저포(白苧布)’일 가능성이 있다.³²⁾ 모시는 1260년 이래 꾸준히 고려 밖으로 유출되었다. 1262년(원종 3) 세저포 8필을 비롯하여 1263년(원종 4) 4월에는 백저포 300필을 바쳤다.³³⁾ 또 1268년 2월에는 고려에서 바치는 모시가 그전보다 수량도 적고 질도 나쁘다³⁴⁾는 지적도 하였다. 14세기 전기(1318~1344)에도 원나라에서 저포, 세저포, 백저포, 문저포 등을 요구한 기록이 보이는데 특히 문저포(紋苧布·文苧布)를 『고려사』에서 검색해 보면 10건³⁵⁾이 확인된다. 시기적으로는 『원본노걸대』와 같은 시기인 14세기 전기(1322~1355)에 집중되어 있다.

28) 薛培煥,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5쪽.

29) 『元史』 卷78, “質孫 …… 服大紅珠寶里 紅毛子答納 …… 服白毛子金絲寶里 …… 服駝褐毛子金絲寶里 ……”.

30) 薛培煥, 앞의 논문, 146쪽.

31) 최규순·包銘新, 앞의 논문, 128쪽.

32) 위의 논문, 130쪽.

33) 『高麗史』 卷25, 世家 卷第25 元宗 3年 12月 丁卯; 元宗 4年 4月 甲寅.

34) 『高麗史』 卷26 世家 卷第26 元宗 9年 2월 壬寅. “爾等賫來國贖紵布, 減於舊額, 又甚羸惡 何也”.

35) 『高麗史』 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 9年 7月 丙申; 卷35, 世家 卷第35 9月 乙卯; 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 10年 10月 丁卯; 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 16年 5月 丁丑; 卷37, 世家 卷第37 忠穆王 元年 5月 甲申; 卷37, 世家 卷第37 忠穆王 2年 4月 丁丑; 卷38, 世家 卷第38 恭愍王 3年 3月 辛未; 卷38, 世家 卷第38 恭愍王 3年 5月; 卷38, 世家 卷第38 恭愍王 4年 5月 壬子; 卷38, 世家 卷第38 恭愍王 4年 7月 辛丑;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이에 앞서 충렬왕의 비인 원성공주(元成公主, 제국대장공주, 1259~1297)가 한 비구니로부터 백저포 선물을 받았는데 “곱기가 매미 날개 같고 어지러이 무늬가 있었다”³⁶⁾고 한 기록이 보인다. 이것이 문저포의 첫 기록인데, 이후 원나라에 문저포가 알려지면서 백저포에 대한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원에 문저포를 보낸 시기는 10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7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여름철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상인이 1월에 개경을 출발해서 대도에 도착하면 여름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어 모시를 팔기 좋은 시기가 된다. 고려 상인이 가지고 간 모시는 11새[綜] 100필과 9새 30필인데³⁷⁾ 1350년대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물 중 송부개(宋夫介, 생물 미상)의 분홍 모시 요선철릭[그림 1-1]³⁸⁾이 현전하고 있는데 9새 모시[그림 1-2]³⁹⁾로 제작한 것이다. 9새 모시가 이 정도로 고우니 11새 모시의 곱기를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은 11새 모시를 상등품이라고 3정(定) 반에 팔겠다고 하고, 9새의 것은 중등품이라고 하여 2정 반에 팔겠다고 하였다.⁴⁰⁾ 그러자 중국 상인은 주인공이 가져간 옷감에 대해 폭과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짜임도 일정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았다.⁴¹⁾ 중국 상인과 주인공 사이의 모시 흥정이 이루어져서 결국 상등품 11새는 3정에 팔았고 중등의 9새는 2정에 팔았는데⁴²⁾ ‘1정’이 50냥이므로⁴³⁾ 모시를 판매한 금액은 총 310정, 즉

36) 『高麗史』「列傳」2 忠烈王, “有一疋, 獻白苧布, 細如蟬翼, 雜以花紋”.

37) 정광, 앞의 책, 349~350쪽[제100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3쪽.

38) 국립무형유산원, 『모시짜기』, 2017, 17쪽.

39) 趙丰·尙剛, 『絲綢之路与元代藝術』, 香港: 藝紗堂, 2005, 3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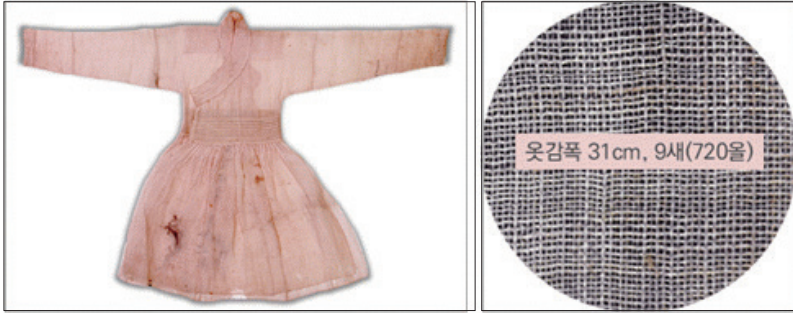
40) 정광, 앞의 책, 342~343쪽[제98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1쪽.

41) 위의 책, 346~347쪽[제99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2쪽.

42) 위의 책, 342~343쪽[제98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1쪽.

43) 박성훈,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009, 1224쪽.

15,500냥에 이른다.



【그림 1】 해인사 소장 비로자나불복장 분홍 모시

(1) 요선철릭(국립무형유산원 2017: 17)

(2) 조직(趙丰·尙剛 2005: 320)

2) 철릭포

고려 상인이 모시포와 함께 대도에 가져간 옷감은 ‘철릭포[帖裏布]’⁴⁴⁾이다. 철릭에 사용되는 삼베라는 의미, 또는 당시 철릭이 가장 널리 착용되었던 옷이라고 볼 때, ‘일상적인 삼베’를 지칭하는 명칭이었을 것이다. 『원본노걸대』의 ‘철릭포’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⁴⁵⁾에서 ‘黃布’로 바뀌었으며 이에 대해 ‘가믄뵈’로 언해되었다.⁴⁶⁾ 또 1795년(정조 19) 사역원에서 간행한 『重刊老乞大諺解』에는 ‘황포’를 ‘누른뵈’⁴⁷⁾로 언해하였다.

‘가믄뵈’와 ‘누른뵈’는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눌재집(訥齋集)』을 통해 동일한 삼베임을 알 수 있다.

44) 정광, 앞의 책, 342~343쪽【제98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1쪽.

45) 『老乞大諺解』下, 53b.

46) 박성훈 편저, 앞의 책, 11쪽.

47) 『重刊老乞大諺解』下, 56a.

“소위 흑세마포(黑細麻布)라는 것은 전일에는 주토(朱土)로 염색한 것으로, 즉 담홍포(淡紅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근일에는 치자(梔子)로 염색하니, 즉 담황포(淡黃布)입니다. 이름과 빛깔이 서로 달라서 옳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천흑색(淺黑色)으로 염색하거나 아예 담황포라고 칭하여 이름과 실체가 서로 맞게 하십시오. 비록 중국에서 말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대답한다면 또한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⁴⁸⁾

전일에 주토로 염색하였다는 흑마포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21년(세종 3) 대비(大妃)의 대상(大祥) 후에 담청색과 회색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흑마포 담토홍의(淡土紅衣)를 입으라고 한 기록이다.⁴⁹⁾ 성종(재위 1469~1494) 때까지도 흑마포 철릭의 수요가 적지 않게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⁰⁾ 『고려사』에는 흑마포의 기록이 6건⁵¹⁾ 정도 확인되는데 4건은 원이나 명에 보내는 예물로 사용된 것이고 1건은 유구국에, 1건은 개인에게 보낸 선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철릭포는 주토로 염색한 담홍포이던 것이 조선시대에 치자 염색을 하면서 누런 베[黃布], 또는 검은 베[黑麻布]라고 불리었던 흑마포, 흑세마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삼베가 흑마포 또는 황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림 2】⁵²⁾의 삼베 모습을 통해 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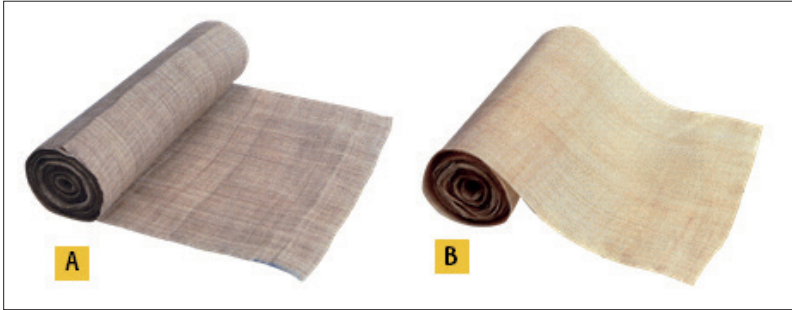
48) 梁誠之, 『訥齋集』 卷4, 奏議, “又所謂黑細麻布者。前日則染以朱土。卽淡紅布也。近日則染以梔子。卽淡黃布也。名色相殊。甚爲不可。今後或染淺黑色。或稱淡黃布。使之名實相稱。雖中國以爲言。以此答之。亦無不可。” 한국고전번역원, <https://han.gi/TgFOs>

49)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6월 26일 정사, “禮曹啓: “大妃大祥後, 上下竝用淡青色灰色, 其未及備者, 通着黑麻布淡土紅衣。” 從之.”

50) 『성종실록』 157권, 성종 14년 8월 11일 신미.

51) 『高麗史』 卷39, 世家 卷第39 恭愍王 7年; 卷46, 卷第46 恭讓王 3年 6月; 卷46, 世家 卷第46 恭讓王 4年 2月; 卷133, 列傳 卷第46 禡王 3年 3月; 卷135, 列傳 卷第48 禡王 10年 閏10月; 卷137, 列傳 卷第50 昌王 元年 8月.

작할 수 있다.



【그림 2】삼베 상피내기 전의 흑마포 상피낸 후 황포라고도 한 흑마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2009: 121)

대도에서 고려 상인이 철릭포를 팔고 받은 가격은 좋은 것은 70냥을 받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1정, 즉 50냥을 받았다.⁵³⁾ 모시 가격과 비교해 보면 거의 반값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가격을 흥정할 때 포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중국 상인이 트집을 잡는 장면이 있다.⁵⁴⁾ 제대로 50자가 되는 것도 있으나 40자밖에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모시나 삼베의 1필 길이를 35자를 정식으로 삼았는데 이때는 한 필의 길이를 50자를 정식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고려 상인이 가지고 간 전체적인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기 위해 말의 가격까지 확인해 보면 좋은 말이 7정(350냥), 좋지 않은 말이 5정(250냥)이었다⁵⁵⁾ 고 한다. 세 품목을 비교하기 쉽도록 단위 ‘정’을 모두

52)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박물관의 도시 안동』, 2009, 121쪽.

53) 정광, 앞의 책, 342~343쪽【제98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1쪽.

54) 『度支準折』, 16a.

55) 정광, 앞의 책, 219쪽【제63화】; 『元代漢語本老乞大』, 45쪽.

‘냥’으로 통일해서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말의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모시가 결코 싼 상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 고려 상인이 대도에서 판매한 상품의 가격

등급\상품	말	모시포	철릭포
상품	350냥	150냥(11새)	70냥
하품	250냥	100냥(9새)	50냥

출처 : 『元代漢語本老乞大』, 2000, 경북대학교 출판부, 71쪽.

2. 고려 상인이 구입한 원나라 직물

1) 능·견

『원본노걸대』 【제10화】⁵⁶⁾에 따르면 고려 상인은 대도에서 능, 견, 면 자 등을 구입하였다. 고려에서는 염색을 한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나라에서 박견(薄絹) 1필을 17냥에 구입한 후 소홍(小紅)으로 염색하여 이견(裏絹)으로 판매한다고 하였다. 능직물[綾子]은 필당 25냥으로 구입하여 아청과 소홍으로 염색해서 판매하는데 아청색의 염가는 5냥이고 소홍색의 염가는 3냥이라고 하였다. 아청색은 조선 전기 세종 때⁵⁷⁾에도 고가의 염료로 인식되고 있었다. 『天工開物』에 염모청포색법(染毛靑布色法)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무호(蕪湖, 안휘성)의 염색법에서 유행하여 현재까지 천여 년이 지난 것인데 변방 지역이나 외국에서는 이를 귀중한 피륙으로 여겼다고 한다. 짙은 청색으로 염색한다⁵⁸⁾ 고 하는데 이것이 아청

56) 위의 책, 55쪽【제10화】; 『元代漢語本老乞大』, 8쪽.

57)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0월 30일 기해.

58) 『天工開物』 卷上, 50a.

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홍색은 기본 염재로 소목(蘇木)을 사용하고 그 외에 황단, 괴화, 초향(炒香) 가루, 명반 등을 사용하였다.⁵⁹⁾

고려에 가지고 가면 견 1필은 오종포(五綜布) 3필 값을 받는데 아청색은 포 6필을 받으며 소홍은 5필, 솜[綿子] 4근은 포 1필에 팔린다고 하였다. 오종포 3필이 원나라 중통초로 환산해서 30냥이라고 하니, 포 1필이 10냥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대략 곱질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5리(利)의 이윤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상인이 소홍색의 이견[小紅裏絹]을 구입해 온다는 것이 흥미롭다. 당시 소홍색 안감을 사용하는 것이 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홍색 이견이란 안감으로 사용하는 소홍색 견을 말하는데 여말선초의 초상화, 조선 초 태조 어진【그림 3】⁶⁰⁾이나 이색(李穡, 1328~1396)의 초상화【그림 4】⁶¹⁾ 등에 표현된 곤룡포나 단령의 안감이 왜 홍색으로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표 2】 중국에서의 직물 구입가와 국내 판매가 및 이윤

소재 가격	능		견	솜
기본가격	25兩/匹	25兩/匹	17兩/匹	1兩2錢/兩
염가	아청 5兩	소홍 3兩	2兩	-
단가	30兩(오종포3필)	28兩	20兩	4兩8錢/4兩
판매가	60兩	50兩	30兩	10兩/4兩
이윤	2.00	1.78	1.5	2.08

출처 : 『元代漢語本(老乞大)』, 8쪽.

59) 『林園十六志』 卷29, 展功志 卷2 小紅色.

60) 국립전주박물관, 『왕의 얼굴』, 2005, 62쪽.

61) 한국국학진흥원, 『肖像: 형상과 정신을 그리다』, 2009, 27쪽.



【그림 3】 태조 어진(국립전주박물관 2005: 62) 【그림 4】 이색 초상(한국국학진흥원 2009: 27)

2) 아청금홍배단자·화직·화소

(1) 아청금홍배단자

【제73화】⁶²⁾에는 고려 상인이 옷감 가게에 들러 많은 옷감들을 둘러본 후 고려에 가서 팔 것이라고 흥정해서 싼 가격에 옷감을 구입하는 장면이 실려 있다. 아청금홍배단자와 화직(和織), 화소(和素)를 구입하였다. 금홍배가 있는 옷감은 3정 부르는 것을 2정(100냥)에 구입하였고 화직은 90냥이라고 부르는 것을 70냥에, 화소는 50냥이라고 부르는 것을 40냥에 구입하였다. 구매한 분량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가격으로 미루어볼 때 1필씩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상인이 구입한 아청금홍배단자의 홍배 문양은 밝혀져 있지 않다. 고려나 원나라의 직금 유물을 통해 금홍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⁶³⁾ 【그

62) 정광, 앞의 책, 251쪽【제73화】; 『元代漢語本《老乞大》』, 52~53쪽.

63) 심연옥, 「고려시대 직금 직물의 조직 특성 및 유형 분류」, 『韓服文化』 18(4), 2015, 145~146쪽. 직금 유물은 대략 4종류의 조직으로 분류되는데, 위중조직의 직금주·직금능·직금단·직금사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별결금(lampas), 장화(brocade), 타 피스리(silk tapestry) 등이 있다.

림 5]⁶⁴⁾의 유물이 원대의 아청금홍배단자(직금능)이다. 이 유물은 우입 교령의 착수포인데 옷감 바탕에는 화문이 깔려 있고 가슴과 등에 금사로 짠 토문(兔紋) 홍배가 있다. 원나라와 고려 직물⁶⁵⁾에서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토문 직물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 단 이 지역에는 “토끼가 귀하다”⁶⁶⁾고 한 기록은 보인다.



【그림 5】 아청홍배단자 착수포와 토문 홍배(趙丰·金琳 2005: 50~51)

경험 많은 주인공은 가격을 깎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금 홍배에 초금(草金)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강남(江南)에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초금’의 ‘초’에는 ‘조약하다’는 뜻이 있다. 즉 초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좋지 않은 금사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의 함량이 낮거나 가금(假金)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남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 이유로 지적되었다. 이는 14세기 당시 직금 기술에 있어서는 강남의 직조 기술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4) 趙丰·金琳, 『黃金·絲綢·青花瓷』, 香港: 藝紗堂, 2005, 50~51쪽.

65) 趙丰, 『織綉珍品』, 杭州: 藝紗堂, 1999, 433쪽;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94~95쪽.

66)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록 저,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2019, 189쪽.

당시 원나라의 특징적인 직물로, ‘나시즈(*nasij*, gold brocade)’라고 하는 직물이 있다. 『元史』에는 ‘납석실(納石失)’이라 하였는데 이를 ‘금금(金錦)’이라고 설명하였다.⁶⁷⁾ 가죽에 금을 올려 만든 가는 금사를 넣어 짠 직물이다. 나시즈는 질손연(質孫宴)의 겨울옷에 사용한 소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東方見聞錄』⁶⁸⁾에는 내몽골의 ‘텐둑(Tenduc, 天德, 豐州)’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카타이를 향해 동쪽으로 이레 거리⁶⁹⁾를 가면 교역과 수공업으로 살아가는 이슬람교도들과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시즈를 짰다고 하였다.

몽골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서역의 숙련 직공들을 몽골 영토 안에 모아 놓고 ‘염직제거사(染織提舉司)’를 설치하여 옷감을 짜도록 하였다. 중앙아시아와 각지의 직조 기술들이 결합되어 훌륭한 직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⁷⁰⁾

(2) 화직·화소

주인공이 아청금홍배단자와 함께 구입한 화직(和織)과 화소(和素)를 살펴보자. 이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어서 단정하기 어렵다. 일단 화직과 화소, 두 직물의 차이는 무늬의 유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和)’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한 지명인 ‘카라코룸’의 한자 명칭인 ‘화림(和林)’의 장인들이 짠 직물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67) 『元史』 卷78, “天子質孫, 冬之服凡十有一等, 服納石失【金錦也】”.

68) 마르코 폴로 저, 김호동 역,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17, 188, 205쪽.

69) 위의 책, 27쪽. 해가 있는 동안 말을 탄 채 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30Km 정도를 하루거리로 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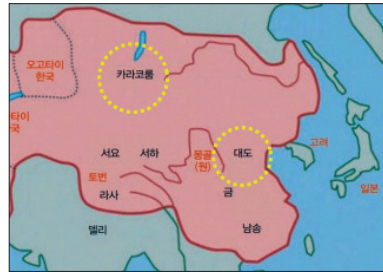
70) 趙丰, 앞의 책, 1999, 433~434쪽.

몽골인들이 세운 최초의 도시라는 카라코룸(Qaraqorum)【그림 6】⁷¹⁾은 원대에 ‘합랄화림(哈刺和林)’ 혹은 줄여서 ‘화림’으로 표기되던 곳이다.⁷²⁾ 카라코룸 즉, 화림이 위치한 항가이 지역은 우량이 풍부하고 목초의 생육이 좋아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며 동서교통로의 요충지였다. 또한 유럽 등 몽골 정복 지역 각지에서 온 여러 기술자와 공예가가 모여 있던 다종족 혼합의 국제도시였다. 화림에서 대도로 수도를 옮긴 후에도 장인(工匠)에 대한 관리는 지속되었다.⁷³⁾

원대 서원서(徐元瑞)의 『吏學指南』 부역(徵斂差發) 조에 ‘화직’에 대해 짧은 설명이 보이는데 화직은 ‘떡공(覓工)이 실[絲]로 만든 것을 말한다.’⁷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걸대』의 내용으로 보면 화직과 화소는 ‘떡공이 만든 견직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떡공’은

‘고용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지역에 ‘떡공’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화림에서 작업하는 ‘서역인 장인’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화직과 화소는 화림의 장인들이 짠 옷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강남에서 직조한 옷감과 차별화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화직은 13세기 후기에 황제가 고려 원종에게 보내준 서금(西錦)⁷⁵⁾이라는 직



【그림 6】 카라코룸(和林)과 대도 위치
(그래픽: 이민자,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0>)

71) 카라코룸(화림)은 대도(大都, 燕京, 北京)로 수도를 옮기기 전의 몽골의 수도였다.

72) 마르코 폴로, 앞의 책, 183쪽.

73) 李珣, 「원대(元代)의 카라코룸, 그 흥기(興起)와 성쇠(盛衰)」, 『몽골학』 4, 1996, 7, 17, 22쪽.

74) 徐元瑞(1301), 『吏學指南』 卷7, 徵斂差發, “和織 謂以絲覓工造作也”.

75) 『高麗史』 卷26, 元宗 5年 2月 丙寅; 4月 乙卯; 元宗 9年 2月 壬寅; 元宗 11年

물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연구자는 화직과 화소를 화림 지역에서 짠 직물이라는 가설을 제시하면서 추후의 연구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한편 화직의 가격이 70냥인데 염색하지 않은 능 1필이 25냥이라고 했다. 화직은 능의 세 곱절에 가까운 고가 직물임을 알 수 있다. 또 ‘화소’는 화림에서 짠 무늬 없는 직물로 추정해 보면 강남이나 산동에서 짠 옷감보다는 비싸고 무늬가 있는 ‘화직’보다는 저렴한 직물임을 알 수 있다.

3) 자색 저사단자

【제74화】⁷⁶⁾에는 주인공 본인의 옷[襖子] 1벌을 만들 수 있는 자색 저사단자[紫紵絲段子]를 구입하는 내용이 보인다. ‘저사단자’는 ‘저사’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청대(清代) 진원룡(陳元龍, 1652~1736)의 『격치경원(格致鏡原)』에는 송대에 ‘각사(刻絲)’가 광택이 없고 두터워서 새로 ‘저사’를 만들었다⁷⁷⁾는 기록이 보인다. ‘저사’는 광택이 좋은 주자직 옷감으로, 14세기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비단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저사’와 ‘단자’는 별개의 명칭이다. 옷감의 단위에서 비롯된 ‘단자’는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나⁷⁸⁾ 『노걸대』 기록처럼 ‘저사’에 붙기도 하였다. 17세기부터는 ‘저사’라는 명칭이 점차 사라지고 ‘段子’로 정착된다. 청나라 기록에는 ‘緞子’로 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중기부터 ‘緞子’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⁷⁹⁾ 그러나 그보다 이른 시기의 김덕원(金德遠, 1634~1704) 단령 감의 식서에 직조된 글자 중에 ‘緞’이라는 한자가 보인다.⁸⁰⁾

12月 乙卯.

76) 정광, 앞의 책, 255쪽【제74화】; 『元代漢語本《老乞大》』, 53~54쪽.

77) 『格致鏡原』 卷27, 布帛類, 克絲【附紵絲】. “格古要論紵絲作新織者 刻絲作而欠光淨厚不逮刻絲多矣”.

78)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2002, 123쪽.

79) 『續大典』 卷3, 17a.

주인공이 사고자 하는 옷감의 길이는 7발[托]⁸¹⁾이다. 7발은 관척(官尺)으로 2장 8촌이고 재의척(裁衣尺)으로는 2장 5촌이니 ‘세습아(細褶兒)⁸²⁾’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老乞大集覽』에는 ‘細褶’을 ‘ㄱㄴㄴ 결주름’이라고 풀이하면서 ‘습(褶)’대신 ‘접(摺)’이 옳다⁸³⁾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문헌들이 ‘細褶’이라고 표기한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같은 글자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세습아가 ‘가는 결주름’의 옷이 액주름[腋注音][그림 7]⁸⁴⁾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포처럼 뒷자락이 달린 양옆 주름의 원나라 포[그림 8]⁸⁵⁾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무튼 상점의 주인 말에 의하면 세접아는 직신보다 옷감이 많이 드는 옷이라고 하니 세접아가 액주름은 아닐 것이다.

7발은 직신오자(直身襖子)를 만들고 남을 것이라고 하므로 세접아는 직신보다 옷감이 많이 사용되는 옷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대표적인 남자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잔주름의 첩릭[그림 9]⁸⁶⁾일 가능성이 크다. 17세기 중후기 방이지(方以智, 1611~1671)는 『通雅』에서 “근세에는 접자의(摺子衣)를 직신이라고 한다”⁸⁷⁾고 하였다. 근세에 그렇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의미는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자료인 『酌中

80) 김덕원묘 출토 의복 일괄(金德遠墓 出土 衣服 一括),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1356&ccbaKdcd=12&ccbaAsno=06720000&ccbaCtcd=11>

81) ‘발[托]’은 양쪽 팔을 벌린 길이로, 약 4자(130cm) 정도라고 하니, 7발이면 910cm 정도가 된다.

82) 『譯語類解』, 6a, “ㄱㄴㄴ주름”; 『方言類釋』, 25a, “준주름”.

83) 정광·양오진 역주, 앞의 책, 143쪽.

84) 옛길박물관, 『중치막 자락에 깃든 사연』, 문경시, 2010, 12쪽.

85) 隆化民族博物館, 『洞藏錦繡六百年』, 北京: 文物出版社, 2015, 89쪽.

86)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37쪽. 세습아는 허리에 가는 주름이 있는 옷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첩릭[帖裏]’이라고 하였다.

87) 『通雅』, 卷36, 17a.

志』에는 직신이 도포 제도와 같으나 바깥쪽으로 트임[擺]이 있다고 하였고⁸⁸⁾ 『노걸대』의 옷감 상점의 주인 역시 직신은 세습아보다 옷감이 덜 든다고 하였으니 직신은 당시의 직령【그림 10】⁸⁹⁾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16세기 최진 부인 묘 출토 액주름 (옛길박물관 2010: 12)



【그림 8】 원대 大褶袍(隆化民族博物館 2015: 98)



【그림 9】 세습아(철릭)(국립민속박물관 2000: 37)



【그림 10】 직신(직령)(중앙일보사 199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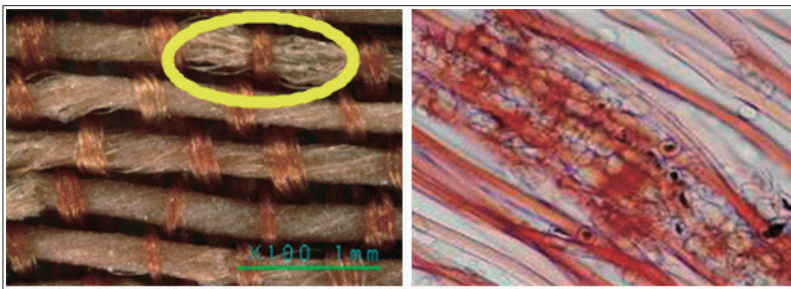
한편 옷감을 재는 두 종류의 척도, 즉 관척(官尺)과 재의척(裁衣尺)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 관척은 명칭 그대로 ‘관에서 제조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출토된 자에 따르면 1자 길이는 31.2cm라고 한다. 이 수치에 맞춰 계산해 보면 2장 8촌은 650cm 정도가 된다.⁹⁰⁾ 또 재의척은 흔히 포

88) 『酌中志』 卷19, 10b.

89) 中央日報社, 『人物畫』, 1993, 100쪽. 발립에 홍색 직령을 입고 있는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의 초상이다.

백척(布帛尺)·침척(針尺)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길이는 34.5cm라고 한다. 이 역시 환산해 보면 707cm 정도가 되어 50~60cm 정도의 길이 차이가 난다. 관척보다 재의척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상인이 구입한 것이 저사단자이므로 대략 70cm 전후의 너비 옷감으로 본다면 700cm 길이의 옷감으로 철릭이나 직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옷감의 산지(產地)를 물으니 외지[外路]의 것이 아니고 이 곳[服地]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분식(粉飾)’없는 좋은 ‘청수단자(淸水段子)’라고 하였다. 『老朴輯覽』⁹¹⁾ 과 『朴通事諺解』⁹²⁾ 에 ‘백청수견(白淸水絹)’에 대해 ‘물에 풀기 없이 다듬어 돌[石碾]로 밀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분식’이란 ‘풀기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직과정 중에 먹인 풀을 깨끗이 빨지 않아 옷감에 풀이 남아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분식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듬이하여 광택을 내면 ‘청수단자’ 또는 ‘수청비단’⁹³⁾ 이 되는 것이다. 관음사 1502년 복장직물 중에서 풀기가 남아 있는 ‘분식’의 모습 [그림 11]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분식(粉飾)이 보이는 관음사 복장직물 사례(심연옥 2019: 85)

90) 정광, 앞의 책, 253쪽.

91) 崔世珍, 『노박집람 역주』, 정광·양오진 역주, 태학사, 2011, 245쪽.

92) 『朴通事諺解』 上, 43b.

93) 심연옥, 「1502년 천정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직물 연구」, 『服飾』 69(2), 2019, 85쪽.



【그림 12】주홍색 토문 직금능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93)



【그림 13】紫地臥鹿紋粧金絹
(趙丰 1999: 425)

4) 추목면·혼금화소단자·초금단자

【제104화】⁹⁴⁾에 보이는 추목면(麤木綿)과 혼금화소단자(渾金和素段子), 초금단자(草金段子)는 귀국길에 앞서 구입한 직물류이다. 3종의 직물을 모두 100필씩 샀다. 추목면은 명칭 그대로 거친 무명을 말한다. 정확하게 몇 새라는 언급은 없기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고려에 목면이 널리 보급된 상태가 아니기에 거칠다 해도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혼금화소단자는 혼금을 사용한 화소단자이다. 『譯語類解』에는 ‘혼금답자(渾金搭子)를 ‘순금비단’으로 언해하였다. 따라서 ‘혼금’이란 ‘순금’을 의미한다.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좋은 금’⁹⁵⁾이다. 화소단자는 화림에서 직조한 옷감으로, 금사로 무늬를 넣되, 바탕에는 무늬를 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302년 아미타불복장의 토문 주머니의 주황색 직금능【그림 12】⁹⁶⁾이나 【그림 13】의 원대 자색 바탕의 와록문 장금견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94) 장광, 앞의 책, 365쪽【제104화】; 『元代漢語本《老乞大》』, 77쪽.

95) 박성훈, 앞의 책, 1522쪽.

9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 무늬1 직물』, 놀와, 2006, 293쪽.

마지막으로 초금단자의 ‘초금’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질이 떨어지는 금’이므로 초금단자는 고급 직금 직물인 ‘혼금화소단자(渾金和素段子)’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직금 직물이다. 가격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으나 초금단자의 경우는 앞서 구입한 아청금홍배단자의 가격이 필당 2정(100냥)에 구입하였으니 ‘초금단자’는 100냥 정도가 될 것이다. 100필 가격이 200정이니 1만 냥이 된다. ‘혼금화소단자’는 혼금을 사용해서 직조한 화림 장인의 상품이므로 훨씬 비쌌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한어 학습서인 『원본노걸대』를 중심으로 14세기 중기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교역품으로 사용되었던 직물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적인 교역 양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말선초 한어 학습서로 간행된 『노걸대』의 원본에 해당하는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한 『元代漢語本《老乞大》』와 역주로 간행한 정광의 2010년 『原本老乞大』가 학습서이기는 해도 고려 말 당시의 실정을 반영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양국의 교역품으로 기록된 직물을 문헌과 유물 자료를 참고하여 밝혔다.

둘째, 40세의 고려 상인이 세 명의 동료와 함께 원나라에 갔는데 그들이 원나라에 가져간 직물은 모시와 철릭포였다. 특히 원나라에서는 고려 모시를 자주 요구할 만큼 여름철 소재로 인기가 있었는데 고려 상인은 11승 모시 100필, 9승 모시 30필을 가지고 갔다. 트집잡는 중국상인과의 흥정 끝에 상등품인 11승 모시는 150냥에 팔았고, 중등품인 9승 모시는 100

냥에 팔았다.

셋째, 철릭포는 모시에 비해 색이 어두워서 흔히 흑마포로 불리던 삼베로 추정하였다. 고려 때는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중국이나 일본에 보냈던 예물의 하나로 사용되었다. 『눌재집』 기록을 통하여 당시 실제의 색상은 진흙으로 염색한 연한 붉은색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려 상인은 대도에서 상등품 삼베는 70냥을 받았고 중등품 삼베는 50냥에 팔았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삼베 거래 가격은 모시 가격의 절반에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고려 상인은 대도에서 능(綾), 견(絹), 아청금흉배단자(鴉靑金胸背段子), 화직(和織), 화소(和素), 자저사단자(紫紵絲段子), 추목면(麤木綿), 혼금화소단자(渾金和素段子), 그리고 초금단자(草金段子)를 구입하였다. 그중 능, 견, 초금단자는 강남에서 생산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혼금화소단자와 화직, 화소 등은 몽골의 첫 수도였던 화림(和林, Qaraqorum) 장인의 산물일 가능성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和’의 의미를 ‘和林’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찾음으로써 화직과 화소의 의미를 가정해 보았다. 원나라 수도를 옮긴 후에도 화림의 장인들을 관리하면서 짠 직물들이 본토로 유입되어 그 지역 장인들이 짠 직물에 ‘화’자를 붙였던 것이다. 화림에서 짠 화직과 화소는 바탕의 무늬 유무에 따른 명칭으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고려에서 가지고 간 교역 직물은 모시와 삼베 두 종류였으나 대도에서 구입한 원나라 직물은 추목면(麤木綿) 외에 주로 비단류다. 특히 원나라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고급 혼금단자와 약간 질이 떨어지는 초금단자 등 직금단자가 적지 않게 유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21.10.26. 투고 / 2021.11.29. 심사완료 / 2021.12.14. 게재확정)

[Abstract]

**A Study on the Textile Trade between Goryeo and
Yuan based on *The Original Book of Noh Geoldae***

Lee, Eun-Joo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extile trade between Goryeo and Yuan Dynasty based on *The original book of Noh Geoldae*, a book for Chinese conversation.

First, although it is a Chinese conversation book, it would have reflected the situation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extiles recorded as trade goods between Goryeo and Yuan were revealed by referring to literature and relics.

Second, a 40-year-old Goryeo merchant went to the Yuan Dynasty with three colleagues. The fabrics they brought to the Yuan Dynasty were ramie and *cheollikpo*. The merchant took Rami, which was popular in the Yuan Dynasty. There are 100 *pil* of 11-*seung* ramie and 30 *pil* of 9-*seung* ramie. The 11-*seung* ramie was sold for 150 *nyang*, and the 9-*seung* ramie was sold for 150 *nyang*.

Third, *cheollikpo* is a hemp, commonly called black hemp cloth because of its darker color compared to ramie. It is possible that the actual color was pale red dyed with clay. The Goryeo merchant received 70 *nyang* of hemp from the upper class and earned 50 *nyang* of the middle class hemp. Comparing the price of ramie with the price of hemp, it can be seen that it is almost half the price.

Fourth, Goryeo merchants purchased cloths including twill damask(*Neung*), tabby(*Gyeon*), the dark blue brocade with gold thread badge, *Hwajik*, *Hwaso*, purple satin, rough cotton, *honguem-hwaso-danja*, and *choguem-danja* in Daedo ci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eung*, *Gyeon*, and *chogeum-danjae* fabrics from Gangnam area, and *honguem-hwaso-danja* and *Hwajik* are products from Hwarim(Qaraqorum).

Fifth, Goryeo merchant sold ramie and hemp in Daedo City. On the other hand, he bought a lot of silk, in particular, high-quality gold fabrics and low-quality gold fabrics that were popular in the Goryeo and Yuan Dynasty.

□ Keyword

Chinese conversation book, *Original Book of Noh Geoldae*, Goryeo Dynasty, Yuan Dynasty, textile trade

[참고문헌]

『格致鏡原』, 『高麗圖經』, 『高麗史』, 『老乞大諺解』, 『訥齋集』, 『度支準折』, 『吏學指南』, 『林園十六志』, 『朴通事諺解』, 『翻譯老乞大』, 『成宗實錄』, 『世宗實錄』, 『續大典』, 『譯語類解』, 『元史』, 『酌中志』, 『重刊老乞大諺解下』, 『天工開物』, 『通雅』, 『元代漢語本《老乞大》』

姜信沆, 『鷄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91.

국립무형유산원, 『모시짜기』, 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 무늬1 직물』, 놀와, 2006.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국립전주박물관, 『양의 얼굴』, 2005.

김영제,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푸른역사, 2020.

마르코 폴로 저, 김호동 역,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박성훈, 『老乞大諺解辭典』, 태학사, 2009.

薛煥煥, 『蒙·元제국 쿠릴타이(Quriltai)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심연옥,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2.

심연옥, 『한국직물문양 이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출판부, 2006.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박물관의 도시 안동』, 2009.

옛길박물관, 『중치막 자락에 깃든 사연』, 문경시, 2010.

隆化民族博物館, 『洞藏錦繡六百年』, 北京: 文物出版社, 2015.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정광, 『譯註 原本老乞大』, 박문사, 2010.

정광·양오진 역주, 『노박집람역주』, 태학사, 2010.

趙丰, 『織綉珍品』, 杭州: 藝紗堂, 1999.

- 趙丰·金琳, 『黃金·絲綢·青花瓷』, 香港: 藝紗堂, 2005.
- 趙丰·尚剛, 『絲綢之路与元代藝術』, 香港: 藝紗堂, 2005.
- 中央日報社, 『人物畫』, 1993.
- 崔世珍, 정광·양오진 역주, 『노박집람 역주』, 태학사, 2011.
-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저,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까치, 2019.
- 한국국학진흥원, 『肖像: 형상과 정신을 그리다』, 2009.
- 金鎮九, 「老乞大의 服飾研究」, 『복식문화연구』 4(1), 1996.
- 李玠爽, 「원대(元代)의 카라코룸, 그 흥기(興起)와 성쇠(盛衰)」, 『몽골학』 4, 1996.
- 서정원, 「『老乞大』 刊本들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石朱娟, 「《老乞大》와 《朴通事》의 諺解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심연옥, 「1502년 천정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복장 직물 연구」, 『服飾』 69(2), 2019.
- 심연옥, 「고려시대 직금 직물의 조직 특성 및 유형 분류」, 『韓服文化』 18(4), 2015.
- 위은숙, 「원간섭기의 對元貿易: 『老乞大』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1997.
- 정광, 「〈노걸대〉와 〈박통사〉」, 『인문언어』 15(3), 2013.
- 최규순·包銘新, 「元代 質孫服 중 “毛子”에 관한 고찰」, 『服飾』 56(2), 2006.
-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 한국고전번역원 <https://www.itkc.or.kr/>